함께 만들어가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대청호 소식

vol.152
2026 여름

갈겨니

Zacco temminckii, 잉어과

크기	몸 길이는 약 8~12cm이다.
체색과 무늬	몸 색깔은 푸른 갈색이며, 배쪽은 은백색이다. 눈동자 바로 위에 적색 반원이 있다.
주요 형질	몸과 머리는 좌우로 납작하고, 체형은 긴 타원형이다. 주둥이는 짧고 뭉툭하며, 아래턱이 위턱보다 약간 길다.
서식지	유속이 느린 하천 중·상류에 서식한다.
먹이습성	잡식성으로 수서곤충의 애벌레, 육상곤충, 부착조류를 섭식한다.
행동습성	산란기는 5~8월로 모래와 자갈이 있는 여울에 알을 낳는다. 번식기에 수컷의 눈과 턱 주변에는 딱딱하고 큰 돌기가 돋아나고, 등지느러미 앞부분과 배 쪽이 붉어지며 뒷지느러미는 커진다.

CONTENTS

04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한경수 영동네트워크 대표

10 **3차 대청호포럼**
대청호의 이용과 보전, 함께 지혜를 모으다

13 **대청호로컬푸드 이야기 2**
대청호와 옥천살림

17 **대청호 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26**
대청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책임!

21 **정책&이슈**
대청호와 금강에 늘어나는 민물가마우지,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25 **정책연구위원회 활동보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연결하다

27 **네트워크 사업보고**

32 **대청호뉴스&뉴스**

34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36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 소식 vol.152

발행일 2026. 5. 27.
발행인 김정겸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임정미
사무처 임정미, 육정임, 이용욱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강보식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 화 (042)930-7340~1
전 송 (042)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하늘북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50
(042)628-2038

표지이야기 : 푸르름이 짙어가는 여름,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대청호의 맑은 물과 건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역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현장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대청호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청호를 위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잇는 마음으로 영동을 지키다

한경수 영동네트워크 대표

글_**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영동네트워크 대표이자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사를 맡고 있는 한경수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과 사람, 그리고 환경을 향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오랜 시간 영동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며 환경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그는 대청호 유역의 변화와 지역 공동체의 흐름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인물이다. 유기농업과 도농교류 활동, 지역 환경운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한경수 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대청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낯선 영동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

한경수 대표는 원래 영동 사람이 아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생활하던 그는 지난 2000년, 영동 심천면의 연수원으로 오게 되면서 지금의 삶을 시작하게 됐다. 당시 단월드와 관련된 연수원과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활동을 계기로 영동에 정착했고, 이후 농사 그리고 지역 활동까지 이어지며 어느덧 영동은 그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처음에는 농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연농과 유기농업을 공부하며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환경과 먹거리, 그리고 물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지역 환경운동과도 연결됐다.

그렇게 활동을 이어오던 중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의 인연도 시작됐다. 한 대표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건희 전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그때 이건희 처장님이 직접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여기까지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해보자고 하셨죠. 사실 그런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직접 사람을 찾아오고, 이야기를 듣고, 또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한 대표는 영동 지역에서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유기농업과 환경운동, 지역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영동네트워크 활동도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사람을 만나며 성장했던 시간들

활동을 하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사람'을 꼽았다. 지역에서 농사만 짓고 살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회 경험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전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을 같이 하면서 많이 배웠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만 했다면 몰랐을 경험들이었어요.

환경운동이라는 게 결국 사람 만나는 일이더라고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오래 갈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활동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특히 그는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일에도 일부러 도전하려 했다고 말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회의에 참여하는 것, 지역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 모두가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또 활동 초기에는 대청호 식구들이 영동까지 찾아와 농사일을 함께 도와주기도 했다고 한다. 고추를 심는 시기면 함께 땀 흘리며 일했고, 험한 산길을 오가며 활동했던 기억들도 아직 생생하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여기 들어오는 길도 험해서 사고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도 서로 도우면서 활동했던 기억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을 잇는 도농교류의 꿈

한경수 대표는 오래전부터 지역 농산물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활동에도 관심이 많았다.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도시와 농촌이 서로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옥천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로컬 매장과 공동 활동 등을 시도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비록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오래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그는 지금도 도농교류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근에도 회원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옥수수 체험과 교류 활동 등을 준비하며 도시 사람들과 농촌을 연결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농촌은 점점 사람이 줄고 있고, 지역도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도시 사람들과 연결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아이들이 와서 포도 따기 체험도 하고 그랬어요. 직접 농촌에 와서 뛰어놀고 자연을 경험해보는 게 참 좋았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도시 사람들과 농촌 사람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체험농가들도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단순히 일하러 오는 느낌이 아니라 놀러 오고 쉬어가는 느낌으로 체험이 진행되면 좋겠어

요. 그래야 도시 사람들도 부담 없이 농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해보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도시에서는 쉽게 느끼기 어려운 농촌의 분위기나 자연의 여유를 직접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교류들이 계속 이어지면 도시와 농촌이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인터뷰가 이어질수록 한 대표는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도 털어놓았다. 그중에서도 영동 지역의 하천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 현안으로 '사금 채취' 문제를 언급했다. 최근에는 하천에서 사금을 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는 과거 환경연합 회원으로 활동했던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환경을 생각하며 함께했던 사람들이 생계와 현실의 문제 속에서 다시 하천을 훼손할 수 있는 활동에 놓이게 되는 모습을 보며, 한 대표는 지역 환경문제가 단순히 옳고 그름만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사금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전에 환경연합 회원이었던 분들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복잡하죠.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 하천에서 발전기를 사용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환경을 지키자고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역 환경문제는 그냥 반대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까지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증설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결국 감당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시설이 들어오는 건 무조건 반대하려고 해요. 물론 주민 입장도 이해하지만, 결국 환경 문제라는 건 다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환경운동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역 상황도 보고, 현실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하죠. 결국 중요한 건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방향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 활동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개인 시간을 내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이런 활동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행정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청호 주변의 개발과 토지 매입 문제, 하천 주변 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고민을 전했다. 단순히 개발과 보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물과 자연을 어떻게 함께 지켜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찬반의 논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역에서 살아오며 직접 현장을 지켜본 사람의 고민에 가까웠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25주년을 바라보며

인터뷰 도중 한경수 대표는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해온 만큼 누구보다 단체의 변화와 흐름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를 떠올리며, 지금처럼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던 시절에도 사람들의 마음과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죠. 활동 여건도 부족했고 지역마다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 움직였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현장도 다니고 활동 분위기도 굉장히 활기찼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활동이 조금 만성화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활동은 줄어든 느낌도 있고요.

특히 하천감시단 같은 활동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활동들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이나 보수 같은 부분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뒷받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특히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단순한 환경단체를 넘어 지역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청호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 사람들이 연결되고 서로 교류할 수 있었던 게 참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역마다 상황은 달라도 결국 물을 지키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비슷하거든요."

또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오래 이어왔다는 건 의미가 큰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너무 조급하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지역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청호 가족들에게 한마디

인터뷰를 마치며 한경수 대표는 특별한 목표를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금처럼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대청호를 지키는 일도,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도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크게 뭘 해야겠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에서 필요한 일 있으면 같이하고, 또 환경 문제도 계속 관심 가지고요.

예전에는 활동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열악했는데도 다들 마음으로 움직였거든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도 지역에서 한 사람씩 관심 가지고 움직이면 결국 그게 변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영동의 자연과 사람 곁을 지켜온 한경수 대표. 그의 조용하지만 꾸준한 활동은 오늘도 대청호와 지역을 이어주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대청호의 이용과 보전, 함께 지혜를 모으다”

제3차 대청호포럼 개최

글_**육정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총무부장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지난 5월 7일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제3차 대청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청호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국가, 지방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청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개회사는 김정겸 이사장(충남대학교 총장), 축사는 이종식 부이사장(K-water금강유역본부장)이 맡았다. 두 사람은 개회사와 축사를 통해 대청호가 단순한 수자원을 넘어 충청권 공동체의 삶과 미래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하며,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대청호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역할과 책임을 나누고, 논의가 실질적인 실천과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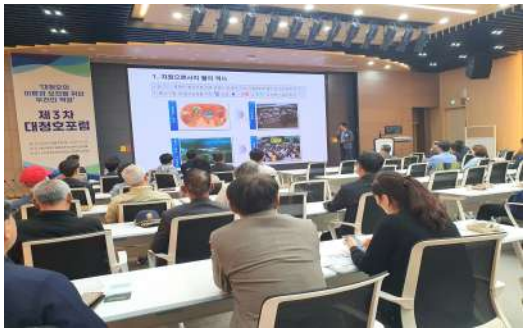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장은 「충청의 식수원, 대청호 관리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충식 소장은 대청호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주민 삶의 질과 재산권 또한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대청호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상생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청호 상수원관리와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역할」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 관리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유역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 주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과, 환경보전과 지역경제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어진 집중토론에서는 대청호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현실적인 과제가 논의되었다. 이상진 전 금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문제가 될 가능성만으로 규제하기보다 실제 오염물질의 영향과 유입경로를 과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동일한 수질 문제에 대한 중복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규제 완화와 환경보전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미영 동국대학교 객원교수는 팔당호 사례를 소개하며 유역관리의 핵심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상·하류 갈등에서 최근에는 지역 내부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공동체 인식과 참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과 기금 운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녹조 문제와 스마트팜 배양액 등 새롭게 등장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



을 설명했다. 현장의 변화에 맞춘 유역관리 방식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토론에서 "대청호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상·하류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연결된 문제"라며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주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청호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상생을 기반으로 한 유역 거버넌스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문섭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 팀장은 "대청호는 충청권 시민들의 중요한 식수원이자 동시에 지역과 공존해야 할 공간"이라며 "수질 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주민과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단순히 규제 완화와 보전의 대립 구도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대청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주민참여형 유역관리와 상생 거버넌스,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대청호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앞으로도 대청호 유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포럼과 정책연구, 주민참여 활동을 이어가며 대청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민관협력 기반 상생 거버넌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청호와 옥천살림

글_**주교종** 옥천살림협동조합 상임이사

여는 글

모내기 철이다. 5월 말부터 6월 초순까지 약 보름 동안에 모내기 시작과 끝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물 사정이 좋아지고, 성능 좋은 트렉터와 승용이앙기가 사람 품을 대신해주는 세월 변화 덕이다.

전기만 집어 넣으면 금강 물을 퍼올려 저수지를 가득 채우고 기름만 넣으면 농기계가 윙윙거리며 논 갈고 모심기를 후딱 해치운다. 그런데, 사는 형편은 갈수록 고되다.

전기와 기름이 없던 시절엔 물은 생명줄이었다.(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에 스며들고 산과 들판을 지나 강으로 바다로 흘러갔다.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고, 계곡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논에는 땅속 구들을 놓아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업수를 만들었다. 그 물로 밥하고 빨래하고 논에 벼를 키웠다. 1960년대 우리마을 풍경이다.

자연과 호흡하는 자급자족의 시절이었다.

70년대 중반, 대청댐 건설이 시작되고 1980년 댐 청댐에 물을 가득 채우고 마을 사람들은 수몰민이 되어 뿔뿔이 흩어졌다. 옥천읍·대전·평택·서울 등지로 형편 되는대로 삶터를 옮겼다.

대청호 상류 청정지역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2중 3중의 규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초집중된 대도시화는 전기 만드는 곳과 주로 쓰는 곳, 물을 깨끗하게 관리 저장하는 곳과 주로 쓰는 곳을 확연하게 둘로 갈라놓았다. 옥천은 그중 상류지역이다. 우리마을은 대청호에 물이 채워지는 맨 끝에 있다. 면지역을 아무리 둘러봐도 굴뚝이 없다. 작은 가내공장 조차도 없다. 한마디로 청정 100%다. 그런데도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늘 눈총을 받는다. 흐르는 강물을 막아놓고 상류지역 사람들 탓만 한다. 하류지역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용담호, 대청호(옥천호), (서천·군산)하구둑으로 나누어 물웅덩이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중간 중간에 보를 추가했다. 물은 흘러야 한다. 한군데에 몽창 모아서 왕창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게 나누어 생활 속에 녹아든 자연과 조화로운 물 보전이 필요하다. 시대를 거스를 수 없다면 더 이상 병이 깊어지지 않게 완화·회복하는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할 때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관련 기관`단체`시민이 함께하는 대청호 상류지역의 바람직한 발전 모델을 세우자.

더불어 행복한 금강·대청호 유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대청호 상류지역, 친환경 로컬푸드의 역사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완전 타결로 농업·농촌은 경악했다. 쌀마저 무너지는 무차별 수입개방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의 늪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때부터 안남면을 중심으로 안내면, 청산면, 청성면 등 산간지역 복합영농을 하는 농가들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고민과 실천 활동을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안남면과 청산면의 의욕 넘치는 젊은 농가들은 UR 대책 농정으로 설계된 자동화 비닐온실 사업에 참여했다. 주머니 돈이 없어 평당 3만원 드는 비닐하우스를 못 짓는 농가가 보조·융자로 평당 10만원 짜리 지동화 비닐 하우스를 지었다. IMF가 터

지고 이자·원금 상환하는 시기가 닥치자 연대보증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던 농가들은 줄줄이 파산했다. 시설과 땅을 날려버린 농가는 망연자실했다. 그중 한 사람은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직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옥천·보은·영동 농민들을 고속도로까지 올라가게 했다. 2000년 11월, 농가부채 해결과 농촌 회생을 외치며 경부선 하행선을 4시간이 넘도록 막았다. 혼란과 아픔의 시기였다.

2002년, 옥천흙살림을 결성했다. 농민회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중심으로 군단위 통합 친환경농업인 단체가 탄생했다.

2003년, 옥천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를 만들고 2007년에는 옥천군 학교급식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시기와 맞물려 옥천군에서는 2005년 4월에 대청호주민연대를 결성하였다.

농업·농촌과 환경·지역 운동이 만나는 접점이 만들어졌다.

2006년, 안남면에서는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가 세워졌고 옥천군에는 조례에 의해 농업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는 금강수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 중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를 종잣돈으로 삼아 안남면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면단위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로 구성했다. 이후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안남어머니학교 운영, 안남배바우도서관 건립 및 운영, 안남배바우도서관셔틀버스(마을순환버스)운영, 안남면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안남면민 안녕기원제, 산수화권역사업, 기초생활거점

사업, 개울가 공중목욕탕사업, 안남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안남배바우장터 공간 마련, 면단위공동체식당 운영 등 현재 안남면의 주민자치 활동의 구심으로 역할 했다. 이 또한 대청호로 인한 지역 여건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한 실증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는 농정자치, 민관협치의 상향식 실천운동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2016년 이후 주민·농민단체와 군의회·행정의 소통 불화로 현재는 뼈대만 남은 앙상한 몰골이다. 주민의 건강한 자치력과 선출된 권력의 건강한 긴장·협력 관계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농발위(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는 옥천군 농정에 큰 획을 그었다.

옥천군 제1차·제2차 푸드플랜 수립, 친환경·로컬푸드·공공급식에 대한 설계와 사업 추진 등 지금의 옥천군 농정의 토대를 만들었고 실제의 추진 활동 단위로 일하고 있다.

옥천군농민회, 친환경농업인단체, 옥천먹을거리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등의 연대활동으로 구심을 세우고 원심으로 확장하는 일관성의 씨앗을 심었다.

2008년, 옥천살림영농조합을 설립했다. 행정은 아무런 준비나 대책, 관심이 없었다. 농민회원과 친환경농업인 중심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수행할 법인을 만들었다. 무모했다. 그러나 절실했다. 5명의 등기이사가 10만원의 출자하고 20여 명의 옥천흙살림 회원의 후원금으로 출발했다. 현재 옥천살림협동조합으로 살아남아 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옥천 구읍에 「옥천살림 우리장터」라는 자립 매장을 2025년 6월에 개장하고 현재 개장 1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학교급식실의 울타리를 넘어 마을로 스며드는 먹을거리 돌봄과 통합돌봄 실천 만들어 가고 있다.

대청호와 옥천·옥천살림은 진행형이다. 서로를 대상화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 가는 순환 공생의 금강·대청호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그 사이에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있다. 인연이 참 깊다.

앞으로 할 일과 갈 길

농도순환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자.

자치단체 사이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상을 공유하자.

먹을거리부터 실마리를 풀자.

우선 민간·시민단체 사이의 일상적인 관계를 마련하자.

- 도랑살리기, 탄소제로 꾸러미 나누기, 텃밭 가꾸기, 열린 장터, 농촌 유학, 작은도서관 교류, 생태 문화마을 만들기 등

그러한 인연 속에 옥천살림이 자리하겠습니다.

맺는 글

늘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길을 내고 글을 걷는다.

대청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책임!

글_**여규용** 대청호해설사

봄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 슬그머니 자리 잡는 여름을 본다, 대청호에 서면 호수는 아직 봄의 초록빛 끝을 붙들고 있다. 수면 위에는 차가운 안개가 낮게 깔리고, 물빛은 은빛과 잿빛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흔들린다. 그러나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 순간 물가의 버드나무 가지 끝이 더 짙은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갈대밭 사이에서 물닭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며 수면을 가른다. 대청호의 봄은 언제나 그렇게, 소리 없이 이 호수에 먼저 도착하고 아련한 그리움을 남겨두고 떠난다. 대청호의 봄은 화려하지 않다. 벚꽃이 일제히 피어나거나 산등성이가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그런 성대한 계절의 도착이 아니다. 호수 둘레의 산 사면 아래에서부터, 물속 깊은 곳에서부터,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부터 봄은 조금씩 스며든다. 산수유가 노랗게 피어나는 호반 마을 돌담 아래, 겨우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단단해진 흙길 위로 개구리 발자국 같은 봄의 흔적들이 하나씩 찍혀 나간다. 대청호는 그렇게 여름을 맞이한다. 나는 매년 이 계절이 되면 대청호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는다. 산길을 내려와 물가에 이르면 신발 코 앞에 호수가 넓게 펼쳐진다. 그 넓이가 참 묘하다. 보는 방향에 따라 호수는 강처럼 좁아지기도 하고, 바다처럼 무한히 펼쳐지기도 한다. 대청호는 충청북도 청주시와 보은군, 충청남도 대전시와 금산군에 걸쳐 있는 큰 호수다. 총저수용량이 약 14억 9천만 톤에 달하는 이 호수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다목적 댐 저수지다. 그러나 숫자로는 이 호수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직접 발로 걸어 그 둘레를 돌아보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물빛을 눈으로 담아낸 사람만이 비로소 그 크기를 몸으로 알게 된다. 봄 햇살이 수면에 내려앉을 때, 물은 반짝이며 깊이를 감춘다. 그 빛 아래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 대청댐이 완공된 것은 1980년의 일이다. 그 이후 40여 년, 이 호수는 충청권 수백만 명의 생명수를 묵묵히 품어왔다. 봄이 가고 여름을 맞는 대청호에 서서 나는 늘 이 물이 지나온 시간을 생각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 물이 흘러갈 시간도 함께 생각하게 된다.

대청호는 오랫동안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공간'이었다. 수도권의 팔당호처럼, 대청호 역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엄격한 규제 아래 놓여 있다. 호수 주변의 토지 이용은 제한되었고, 주민들의 생활방식도 많은 부분 제약을 받아왔다. 낚시도, 수상 레저도, 심지어 호숫가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일상적 행위들도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었다. 이 규제의 배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대청호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 일원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수원지다. 대청댐이 완공된 이래로 이 호수가 공급하는 물의 양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었다. 수질오염은 곧 수백만 명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막고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규제가 없었다면 대청호의 수질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악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규제 일변도의 접근 방식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호수 주변에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점점 '대청호의 주인'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 되어갔다. 호수를 지키기 위한 각종 행위 제한은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졌고, 규제에 대한 반감이 쌓이면서 정작 호수를 사랑하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호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청호는 단지 물을 저장하는 그릇이 아니다. 이 호수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이기도 하다. 수몰지역이었던 옛 마을의 흔적들이 물속에 잠겨 있고, 가뭄이 들어 수위가 낮아지는 해에는 그 흔적들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기도 한다. 그 풍경은 묘하게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이 호수가 품고 있는 역사의 무게를 실감하게 만든다. 대청호는 누군가의 고향이었다. 누군가의 논밭이 잠겨 있고, 누군가의 조상 묘소가 물 아래에 있다. 그 희생 위에 지금의 대청호가 있다. 또한 대청호는 그 자체로 중요한 생물 서식지다. 수달, 삵, 원앙 같은 법적 보호종들이 이 호수와 그 주변 숲에 살아가고 있다. 철따라 날아오는 겨울 철새들은 대청호를 중간 기착지이자 월동지로 삼는다. 수면을 수놓는 백로 떼, 이른 아침 물안개 속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왜가리, 갈대숲 사이를 누비는 작은 새의 날갯짓. 이 생명들이 대청호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 호수가 단지 인간을 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토록 많은 역할을 묵묵히 해온 대청호가,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

여지기를 요청받고 있다.

얼마 전, 대청호 포럼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호수 주변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청호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오갔지만, 그날 대화의 흐름에서 내가 가장 또렷하게 느낀 것은 하나였다. '이제는 시민이 함께 지키는 대청호'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였다.

오랫동안 대청호는 '위에서 아래로' 관리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을 만들고 집행하면, 주민과 시민은 그 규정에 따르거나 어기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호수에 대한 책임은 관리 주체가 지는 것이었고, 일반 시민들에게 대청호는 그저 '저 멀리 존재하는 수원지'이거나, 가끔 드라이브 나올 때 창밖으로 스치는 아름다운 풍경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대청호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지킬 수 없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 호우가 번갈아 찾아오는 시대에, 상류에서 흘러드는 오염물질의 경로와 종류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한두 개의 기관이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호수 전체를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시각을 바꾼다는 것은, 먼저 '대청호를 나의 호수로 느끼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많은 환경 연구들은 지역 주민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 환경 보호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규제는 명백한 위반을 막을 수 있지만, 규정에 없는 수천 가지의 작은 행동들「쓰레기를 줍는 것,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 물을 아끼는 것, 호수 주변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 시민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책임감이다.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청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규제 중심의 관리 방식은 어떤 면에서 시민들을 대청호로부터 멀리 세워두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공간, 조심해야 하는 공간, 행동을 제약받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대청호를 사랑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들이 대청호를 직접 보고, 걷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환경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린 시절 대청호 물가에서 직접 도룡뇽 알을 본 아이는, 자라서도 그 기억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 봄날 개구리 울음소리를 직접 들은 경험, 물가에서 귀여운 새 후투티의 날갯짓을 목격한 경험, 그 물이 흘러 자신이 마시는 수돗물이 된다는 것을 배운 경험. 이런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이 쌓일 때, 대청호는 비로소 개념이 아닌 실재하는 존재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는다. 그렇게 대청호와 연결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 오래가는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 시각을 바꾼다는 것은, 대청호를 '관리의 대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마치 이웃처럼, 혹은 오래된 친구처럼 말이다.

시민이 함께 지키는 대청호를 꿈꾼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책임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진심으로 아끼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감수하고 행동하게 된다. 대청호를 나의 호수로 느끼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몇 가지 책임을 떠안게 된다.

첫 번째는 알 책임이다. 대청호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오는지, 어떤 생명들이 이 호수에 기대어 사는지, 이 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지. 이 단순한 앎이 책임감의 출발점이 된다. 알지 못하면 지킬 수 없다. 아이들에게 대청호를 가르치는 것도, 어른들이 대청호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도, 모두 이 '알 책임'을 이행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행동의 책임이다. 알게 되었다면, 그 앎이 일상의 작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청호 유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농약과 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대청호를 지키는 일이다. 호숫가를 찾는 탐방객이라면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배려하며, 조용히 자연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방문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다. 도심에 사는 시민이라면 물 절약과 생활하수 줄이기가 대청호와 연결된 행동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함께할 책임이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대청호를 아끼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행동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지역의 환경 단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 호수 정화 활동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는 것, 대청호 소식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런 작은 연결들이 모여 대청호를 함께 지키는 공동체를 만든다.

네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우리가 지금 대청호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 다음에 올 세대가 어떤 호수를 물려받느냐를 결정한다. 40여 년 전 댐을 만들며 고향을 물속에 내어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청호가 있다.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 이 호수를 아끼고 지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짊어진 역사적 책임이기도 하다.

여름이 시작되는 날 대청호에 서면, 물이 말을 거는 것 같다.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이 넓은 수면 위에 시간이 층층이 쌓인 것이 보이는 듯하다. 수몰된 마을의 기억, 댐을 지으며 흘린 땀, 40여 년간 이 물을 마시며 살아온 수백만 명의 일상.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호수를 바라보며 서 있는 나의 시간. 대청호를 바라보는 시간은 결코 한가로운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을 마주하는 시간이다. 지켜야 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함께해야 한다는 다짐을 새기는 시간이다. 여름은 해마다 소리 없이 이 호수에 찾아오지만, 우리가 이 호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청호의 다음 계절은 달라질 수 있다. 오늘도 대청호는 넓고 조용하게 거기 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 주기를 기다리며 거기에 있다.

대청호와 금강에 늘어나는 민물가마우지,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글_**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청호와 금강 유역에서 민물가마우지를 만나는 일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과거에는 겨울철에 잠시 머무는 철새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 10여년 사이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하천과 호수 곳곳에서 무리를 이루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고, 번식지까지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너무 많아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생태계 변화의 결과를 보여주는 종"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민물가마우지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한 종의 증가 문제를 넘어, 오늘날 하천과 호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대청호의 작은 섬(고래섬)에서 약 350쌍 규모의 민물가마우지 집단 번식지를 확인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가마우지들이 둥지를 손보고 나뭇가지를 나르며 번식을 준비하는 모습

이 관찰됐다. 번식지 주변 나무들은 배설물 때문에 잎이 사라지고 하얗게 변해 있었으며, 바닥 역시 두껍게 쌓인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다. 이미 상당 기간 번식지로 이용되어 왔음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었다.

민물가마우지는 물속으로 잠수해 물고기를 사냥하는 조류다. 수심 2~5m 정도에서 먹이활동을 하며, 잠수 시간도 길다. 몸이 물에 젖기 쉬워 날개를 펼쳐 햇볕에 말리는 독특한 행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겨울철새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서식환경 변화로 인해 텃새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번식지가 새롭게 확인되고 있으며, 개체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경남 주남저수지, 강원 춘천, 전남 여수, 충청권 하천 등 전국 각지에서 민물가마우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나무가 집단 고사하고, 배설물로 인해 악취와 경관 훼손 문제가 발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내수면 어업 피해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둥지 제거와 번식 억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방지단 운영이나 포획 허가 확대를 추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민물가마우지를 단순히 유해야생동물로만 바

라보는 접근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개체수 증가 자체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민물가마우지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하천 환경 변화가 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흐르는 강이던 곳들이 보와 둑, 준설과 같은 개발로 유속이 느려지고 깊은 수역이 늘어나면서 가마우지에게 유리한 환경이 형성됐다. 대청호 인근의 하천 역시 비슷하다. 민물가마우지는 일정한 수심이 확보된 곳에서 먹이활동을 하는데,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청호 주변의 하천과 대청호는 분리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증가하는 추세를 함께 추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천이 정체수역의 결과가 민물가마우지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민물가마우지가 늘어난 지역 상당수는 수심이 깊고 물 흐름이 느려진 호소형 하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청호 역시 넓고 깊은 수면을 가진 인공호수인 만큼 가마우지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민물가마우지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집단 번식지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배설물로 인해 토양 산성화와 수목 고사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대청호처럼 식수원 역할을 하는 수역에서는 배설물 증가가 부영양화와 수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 대청호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위 등 가금류 집단 사육 문제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수 주변에서 대규모로 사육되는 거위

와 오리는 상당량의 배설물을 발생시키며, 이는 강우 시 직접 수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가금류 배설물은 질소와 인 농도가 높아 녹조와 부영양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질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대청호는 시민들의 식수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

야생조류와 사육 가금류가 가까운 공간에서 접촉할 경우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질병 확산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야생조류 이동 경로와 가금류 밀집 사육의 연관성을 중요한 방역 요소로 보고 있다. 결국 대청호 수질과 생태계를 이야기할 때 민물가마우지만이 아니라, 인간 활동으로 인해 증가하는 오염원과 서식환경 변화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원인은 대개 사람들이 만든 구조 안에 있다. 강을 막아놓고 왜 잠수성 조류가 늘었냐고 묻는 장면은 꽤 상징적이다. 환경부가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조류로 지정한 것은 때문에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민물가마우지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 대전에서도 백로 집단번식지 문제로 주민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대규모 벌목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번식지를 단순 제거하는 방식은 또 다른 지역으로 문제를 이동시키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여러 지자체는 번식지 분산, 둥지 조절, 서식환경 관리 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존'과 '관리'를 동시에 고민하는 일이다. 무조건적인 보호도, 무차별적인 제거도 답이 되기 어렵다. 대청호와 금강 유역에서 증가하는 민물가마우지는 기후위기와 하천 환경 변화, 수질 문제, 인간 활동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개체수 논쟁을 넘어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대청호는 시민들의 식수원이자 동시에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생태공간이다. 민물가마우지의 증가를 단순한 "피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강과 호수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생태적 신호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호를 통해 하천의 흐름, 수질, 번식지 관리, 야생동물과 인간의 거리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강을 강답게 관리해야 할 때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연결하다

2026년 정책연구위원회 활동 본격 추진

글_**육정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총무부장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가 올해도 대청호 유역의 현안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섰다. 올해 정책연구위원회는 전체회의, 현안모니터링, 대청호포럼, 연구과제 등 다양한 사업을 중심으로 대청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넷제로공판장에서 열린 제1차 정책연구위원회 운영회의에서는 올해 사업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청호포럼 추진 계획과 연구과제 운영 방향, 현안 대응 전략 등을 공유했으며, 특히 올해 연구과제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를 넘어 상·하류 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는 운동본부의 역할과 대청호포럼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 4월 16일에는 「대청호 보전과 이용에 따른 현안모니터링」이 진행됐다. 이번 현안모니터링은 최근 운항을 시작한 정지용호와 계류장 운영 현황, 장계리 출렁다리 건설 예정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정

책연구위원과 지역 활동가 등이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운영 실태와 환경 영향을 살펴보았다. 참가자들은 직접 도선에 탑승해 운항 과정과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계류장과 주변 환경을 확인하며 향후 상수원 보호와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지역사회 변화와 환경적 영향을 균형 있게 살펴보는 과정에 의미를 두었다.

또한 4월 23일에는 연구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진행되며, 상류지역 주민 권익 보호와 수질보전 간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4대강 유역 네트워크와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정책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수질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과제가 대립이 아닌 상생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연구위원회가 주최한 「제3차 대청호포럼」도 지난 5월 7일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대청호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국가기관,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대청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과제를 공유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 발제와 집중토론에서는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상·하류 상생 거버넌스,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의 균형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대청호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번 포럼은 정책연구위원회가 단순한 연구활동을 넘어 현장과 정책,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청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청호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무주 네트워크

주민과 함께 만든 깨끗한 하천과 마을

글_**전선화** 무주네트워크 팀장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무주네트워크는 올해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과 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 만큼 소유역거버넌스 대상지 마을에서도 좋은 반응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4월 6일 하장백마을에서는 주민 30여 명이 참여해 하천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주민들은 불법 투기 쓰레기와 소각 흔적을 정리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국 식재 활동도 함께 펼쳤다. 이어 4월 16일 상길산마을 금강유원지 일원에서도 주민 34명이 참여해 도로변과 하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불법 투기 및 소각 장소 정비, 수국 식재, 예방 현수막 설치 등을 함께 진행하며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았다.

이번 활동은 주민들이 하천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산 네트워크

금산네트워크, 마을과 함께하는 환경활동

글_**김청자** 금산네트워크 팀장

금산네트워크는 지역 환경보전과 친환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연보호협회 금산군지부와 함께하는 환경정화활동, 정심회의 가시박 제거작업,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친환경농업 실천마을 만들기 사업, 금산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생태환경탐사 및 깨끗한 마을 만들기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금산고등학교 학생들과 생태환경 가꾸기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학교 텃밭에 꽃과 상추, 허브류 등을 심으며 친환경 실천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금산네트워크는 회원마을 중심의 친환경 비누

만들기 사업과 자연보호협회 금산군지부의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금산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보호 실천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옥천 네트워크

소유역거버넌스 “안내천협의회”

글_**오희진** 옥천네트워크 팀장

옥천네트워크는 2026년 소유역거버넌스의 추진을 위해 “안내천협의회”를 진행한다.

대청호 직유입 하천의 주민참여형 유역운동으로 안내천을 중심으로 안내면 방곡리와 안내면 일대 농약병 수거를 진행했다.

안내천마을을 직접 관리하여 소유역단위의 하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려 한다.

“안내천협의회” 사업내용으로는 마을별 정화활동, 환경교육, 회의, 농약병수거 등이 있다.

안내면은 몇 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마을별 정화활동 및 농약병 수거가 잘 이루어지는 마을로 “안내천협의회”를 진행함에 있어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4월27일 안내면 방곡리에서 첫 정화활동과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쓰레기봉투 50ℓ×14, 마대90ℓ×10, 재활용종이 등 많은 쓰레기 수거 및 정리를 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환경교육 진행을 완료했다.

“안내천협의회”는 대청호직유입 하천의 수질개선 실천활동 및 주민들의 환경의식과 마을가꾸기 자치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주민이 직접 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 네트워크

선진지 견학과 줍깅

글_**이미나** 영동네트워크 팀장

영동네트워크는 지난 4월 15일 회원들과 함께 경북 상주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외부시설이 아이들을 배려함이 느껴졌고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서 시간을 보내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실내로 들어가 직원분의 친절한 안내를 받고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자원관 1.2층을 이동하며 설명을 듣게 되었다.해설사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해하기 쉽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상주 석천리에서 영동을 잇는 석천리 둘레길을 줍깅을 하면서 이동을 했다. 상주 옥동서원에서 백옥정, 세심정, 출렁다리, 저승골을 거쳐 영동 반야사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약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시간도 생각보다 길었고 구간이 원만하지 않았지만 줍깅이 주는 뿌듯함이 있었다.

보은 네트워크

깨끗한 대청호 만들기, 함께 실천하다

글_**육예화** 보은네트워크 팀장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보은네트워크에서는 거버넌스 협의체 활동의 일환으로 회남면 대청호 둘레길 일원에서 대청호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거버넌스 협의체 회원, 주민자치회원, 회남면, 하천감시단, 환경연합 회원 등 38명이 함께 참여해 깨끗한 대청호 만들기에 힘을 모았다.

참여자들은 둘레길과 수변 주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집중 수거했으며, 이날 약 1.0톤의 쓰레기를 수거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은 깨끗해진 환경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보은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전 네트워크

대전네트워크, 대청호를 위한 연대와 실천

글_**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교육팀장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네트워크는 올해도 다양한 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5월 18일에는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며 상반기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충남생명의숲은 주원천 환경개선 거버넌스와 주민환경리더 활동을 통해 오염원 모니터링과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청호변 오염원 지도 제작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라온아띠협동조합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 요리교실을 운영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로컬푸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대전YWCA와 대전YMCA는 환경교육, 줍깅, 도농교류 활동 등을 준비하며 대청호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전네트워크는 대청호 가족들과 함께 지속적인 환경실천과 협력 활동을 통해 건강한 대청호 만들기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청주 네트워크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 활동 활발히 진행중”

글_**육정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총무부장

청주네트워크는 문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회원마을과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수질 개선과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실천사업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괴곡리와 두모1리에서는 지난 4월부터 ‘쓰레기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 쓰레기는 내가 책임진다’는 취지 아래 주민들은 올바른 분리배출과 지정일 배출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매립과 소각이 줄고 마을 환경도 한층 깨끗해지고 있다.

구룡리에서는 주민환경리더와 이장님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환경 모니터링과 정화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주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마을 쓰레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주민들의 호응도 얻고 있다.

노현1리에서는 주민 대상 저탄소 요리교육과 환경교육이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기후위기를 생활 속 문제로 함께 고민하고, 로컬푸드를 활용한 저탄소 요리 실습을 통해 일상 속 환경 실천 방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청주YMCA는 지난 4월 18일, 두모1리에서 농촌봉사체험활동을 진행했다. 회원 60여 명이 참여해 딸기 수확, 폐비닐 처리, 마을 정화활동, 환경교육을 함께하며 주민과 환경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청주네트워크는 하반기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천안아산 네트워크

시민과 함께 그린(GREEN) 물 공동체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글_**강보식**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기획부장

천안·아산네트워크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KYC가 각각 하천모니터링, 환경교육,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이끌어 생명의 병천천을 함께 만들어간다. 올해 병천천의 물환경 개선 및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한 공모사업을 전개하여 대청호유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병천천의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하천감시단을 운영하여 직접 현장 조사를 비롯한 하천 쓰레기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인근 캠핑장이나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훼손 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는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물 사랑 시민양성교육」으로 기후위기와 물 문제를 공유 및 수질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민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또, 시민 정책 발굴 및 제안과 대청호 및 병천천의 오염실태를 이해하고, 생활 속 실천 방법을 배워보는 「물 사랑 실천환경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천안KYC는 대청호 상·하류 주민 간의 연대와 공감을 위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대청호의 농산물을 거래하는 「대청호 상·하류 주민교류 활동」을 진행한다. 지속적인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온기가 꽉 찬 공감대의 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청호 뉴스 & 뉴스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카페, 10차례 고발에도 꿈쩍 않는 이유

대전 시민의 생명수인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이 불법 행위의 '거대한 뫼비우스의 띠'에 갇혔다. 대전동구청이 해당 행위자에 대해 지난 3년간 10차례 넘게 고발과 행정 조치를 취했으나 현장의 불법은 오히려 공고해지는 모양새다. 업주가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단순한 '영업 비용'으로 치부하며 법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해당 건축물의 허가 용도는 '마을 공동구판장'과 '유리온실'이다. 공동구판장은 지역 생산물의 저장·처리 및 단순 가공품 판매만 가능해 음식 조리가 불가능하며, 유리온실은 수경·원예재배 시설로만 사용해야 한다.

대전동구청 환경과 상수원보호팀은 이곳이 무허가 건축물 신축 및 불법 용도 변경(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도법 위반)을 했다며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차례 경찰에 고발했다. 위생과 역시 무신고 식품접객업 행위(식품위생법 위반)로 4차례 고발 조치했다. 도시계획과는 불법 증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다.

지속적인 고발에도 영업이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과 업주의 교묘한 수법 때문이다.

현행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주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다. 음식 조리가 불가능한 구판장에 키오스크만 설치한 뒤 주문 받은 음료와 빵은 맞은편 매장에서 배달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동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영업장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인근 매장에 배달을 의뢰하거나 설거지까지 옮겨서 하는 방식이라, 현장에서 조리 행위를 적발했을 때만 간헐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불법 증축(2층 → 3층)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빔 구조의 바닥 판을 잠시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시계획과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역시 영업이익보다 현저히 낮아 실효성이 없으며, 이마저도 현재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긴 불법

사법 당국의 가벼운 처벌도 불법 영업의 불을 지폈다. 검찰은 최근 3년간 대전동구청이 고발한 수도법 위반(3건)과 식품위생법 위반(3건) 모두 6건에 대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불송치 등 경미한 처벌로 사안을 종결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동구청이 경찰에 추가 고발한 사건들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과 2월 동구청이 고발한 수도법·식품위생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3건에 대해 조사중이다.

시민단체 "이행강제금은 '영업세'일 뿐... 강력조치 실행해야"

(중략)

시민단체는 행정당국의 실효성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이 만든 결과"라며 "이행강제금이 사실상 '영업세'로 전락한 상황에서, 이제는 고발을 넘어 강력한 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사익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 행정 당국이 더 이상

법적 한계 뒤에 숨어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충북도, 2026년 녹조 대응 강화 … 녹조확산 선제적 관리 추진

충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집중호우 증가 등으로 녹조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대청호와 충주호를 대상으로 '2026년 조류경보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1차 녹조 계절관리제(5.15~10.15)' 시행에 발맞춰 녹조 발생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청호, 충주호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으로 추진된다.

첫째, 오염원 관리의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가축분뇨·개인하수)에 대한 점검과 정화조 공공관리, 야적퇴비 관리, 축분 다량 발생지역 축분 수거·퇴비화해 녹조 물질인 총인의 호소 유입을 차단한다.

둘째, 취·정수장 관리강화로 안전한 수돗물을 확보한다. 조류경보제 운영 수역의 수면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조류 차단막 설치·녹조제거선 운영을 협조 요청해 녹조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제거를 추진한다.

또한 활성탄과 오존을 활용한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수돗물의 취·정수 처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류독소와 냄새유발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해 안전한 수돗물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수질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조류경보제 자료는 정부 누리집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으며, 도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박성호 도 수자원과리과장은 "매년 높은 기온과 늦더위가 지속되고, 극한 강우가 반복되어 녹조 발생 가능성 높아지는 상황에서 철저한 오염원 관리와 정수 처리를 통해 충북 도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금강일보 김현수 기자

대청호·금강 유역 불법어로 안 돼" 옥천·영동군 단속 강화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충북 옥천군 대청호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다가 지자체 단속에 걸렸다.

동력기관(엔진)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한 내수면어업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A씨는 "법을 잘 몰라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며칠 뒤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꼼짝 없이 물어야 했다.

영동군 금강에서도 지난해 다슬기를 채취하던 행락객들이 단속반으로부터 계도장을 받았다.

소쿠리 형태의 불법 어구를 사용한 게 문제가 됐다.

예년보다 일찍 더위가 시작되면서 강과 호수 같은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지자체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금강 상류이면서 대청호를 끼고 있는 옥천군과 영동군은 5월부터 산란철 쏘가리 포획과 불법 어구를 동원한 어업행위를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은 내수면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투망, 작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극물이나 배터리 등을 사용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쏘가리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여서 집중 단속 대상이다.

두 지자체 관계자는 "야간시간 그물 등으로 다슬기를 남획하거나 모터보트나 배터리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주된 단속 대상"이라며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면서 내수면 어민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주민 89명(옥천 63명, 영동 26명)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금강과 대청호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소식

대전충남녹색연합

멈춰버린 강물 앞에서 생명의 흐름을 외치다

지난 5월 16일, 우리는 경남 창녕군 합천창녕보 친수문화공원에 모여 콘크리트 보에 가로막힌 낙동강을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위기감을 곁에 둔 채 '4대강 자연성 회복-낙동강 대회'의 치열한 현장에 함께 섰습니다.

본 대회 전, 현장 토크쇼에 오른 학계 전문가와 환경 활동가들은 4대강의 처참한 현실을 낱낱이 짚어주셨습니다. 이후에는 녹조 독소 때문에 식수원마저 위협받고 있는 전국 4대강 유역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4대강 자연성 회복 경과를 함께 공유하며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의를 마치고 우리는 보와 녹조를 상징하는 피켓을 들고 4대강 복원을 위한 단체 퍼포먼스를 통해 다시 흘러가는 강물의 가능성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낮 기온 30도가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도 하루빨리 4대강에 안전과 생명이 찾아오길 염원하는 마음 하나로 합천창녕보 위를 행진했습니다.

(중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바다의 시작, 2차 캠페인

5월 9일 청주 성안길에서 성안길상인회와 함께 '바다의 시작' 시민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민 스물 한 분이 자원봉사로 참가를 하셨고, 진천지부에서도 와주셔서 성안길 주변 줍깅 활동과 빗물받이 고래 페인팅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짧은 30분 동안 수거한 담배꽁초의 양은 무려 약 800g, 꽁초 한 개당 0.9g정도로 계산해보면 약 720개비에 달했고, 쓰레기양도 많았습니다. 여전히 거리 곳곳과 빗물받이 속에는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는데요. 담배꽁초와 함께 담배갑도 많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버리는 사람 따로,

줍는 사람 따로인 담배꽁초 문제

지자체와 생산자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묵묵부답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침묵하는 지금도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연과 시민 모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담배 생산 기업에 담배꽁초 수거 책임 등 문제 해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고자합니다. 시민 여러분 '바다의 시작' 함께해주세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아이들 삶터에 LNG 발전소는 안 됩니다"

지난 8월 9일(토) 오후 2시, 천안아산역 동광장에서 '아산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2차 총궐기대회'가 시민

과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약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에 추진 중인 대형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주민 건강권과 안전,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다수 함께해, "아이들이 살아갈 도시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이 현장 곳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총궐기대회는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주민·청소년·시민사회 연대 발언, 결의문 낭독, 거리행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설화중학교 3학년 강민지 학생은 미래세대의 목소리로 "아이들이 살아갈 도시를 어른들이 함께 지켜달라"고 호소했으며,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이 주민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발전소 건설 반대 공약 ▲재생에너지 기반 열공급 정책 전환 ▲신규 LNG 발전소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민의 안전과 미래보다 앞서는 사업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천안아산역 일대 거리행진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단순한 반대 행동을 넘어,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과 결심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주민대책위 및 시민사회와 함께 아산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문제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전YMCA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 역량 강화 교육 in 대전
바로 사용하는 단체 맞춤형 AI 프롬프트 생성기 교육

지난 5월 14일, 국무총리비서실 주최로 사단법인 시민이 주관하고 대전YMCA 시민사업위원회가 협력한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 역량 강화 교육"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9개 지역에서 이어질 교육의 첫 출발점이 된 대전 현장은 AI 활용에 목마른 활동가들의 기대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참석한 27명의 활동가들은 마이오렌지 조성도 대표의 강의를 통해 ▲AI 기본 개념과 활용 방식 ▲단체 데이터 정리·구조화를 통한 활용 기반 설계 ▲맞춤형 프롬프트와 생성기를 통한 실무 적용 실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교육 내내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된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교육을 받았다는 만족감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시작된 이번 교육은 시민사회단체가 AI를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국적 흐름의 첫걸음으로서, 앞으로 이어질 다른 지역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설천면 길산리 상길산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사)정심회
(사)정심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전국축협
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구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성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중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WCA,
대전YMCA,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해병전우회대전신연합회,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동구 신촌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충북생명의숲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노현2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위례마을살이,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천안시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마을 위하여 월별로 다음 사항을 지켜 주세요

1월 객토, 퇴비할 시기

- 퇴비 후엔 꼭 물꼬를 막아주세요.

2월 논·밭갈이를 준비할 때

- 논 물꼬를 계속 막아두면 땅이 척박해지지 않습니다.

3월 논갈이, 논물 가두기 할 때

- 밭을 간 후에는 바로 비닐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볏짚 거적을 깔아 주세요.

4월 모를 기를 시기

- 논을 갈고 물을 가두세요.
- 밭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곳에는 작은 흙웅덩이를 만들도록 합니다.

5월 모내기를 시작할 때

- 밑거름을 주시고, 병충해 방제도 해주세요.
- 써레질 후 흙탕물 가라앉히기 잊지 마세요.

6월 벼 모내기 및 보리 수확

- 밭에 뿌리는 제초제 사용량은 줄이고, 물을 뺄 때 농약과 비료가 빠져나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7월 논에 물 걸러 대기

- 병충해 대비 방제 후 바로 물을 빼지 않습니다
- 비가 내리기 직전에 비료나 농약 살포를 금지합니다.

8월 벼 이삭이 팰 때

- 태풍과 가뭄에 대비해야 합니다.
- 물꼬관리가 필요합니다.

9월 벼가 익어갈 때

- 수확을 준비하여 물을 빼 주세요.
- 밭작물 잔재물을 밭에 넣어 가을 가뭄에 대비하세요.

10월 벼와 과수 수확의 시기

- 수확한 논과 밭에 볏짚을 깔고 논갈이, 밭갈이를 해 주세요.
- 물꼬는 막고 제초제 사용을 줄여 주세요.

11월 한 해 농사가 끝난 시기

- 물꼬 관리 계속해 주시고, 과수원의 배수관리도 철저히 해 주세요.

12월 철새가 찾아올 시기

- 철새 AI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물꼬를 막아 논에 물을 대주세요.

"함께 가꾸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금강보호를 위해 다함께 실천해주세요!

- **버린 쓰레기는 결국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휴가철 대청호는 많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쓰레기를 되가져 가 주세요.

- **낚시와 불법 어획이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위협해요.**
- **가축분뇨를 방류하거나 방치된 축분은 부영양화의 원인입니다.**

  가축분뇨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모아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농사에 쓰이는 축분과 퇴비는 강으로 흘러들지 않게 비닐로 덮습니다.

- **폐수방류로 인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골재채취가 금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 **세차, 가축방목 등의 행위로 금강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 **과다한 농약과 비료사용을 줄여주세요.**
- **각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❶ 빨랫감을 한꺼번에 모아 세탁하고 세제를 적게 사용합니다.

  ❷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구에 버리지 마세요.

  ❸ 기름이 묻은 그릇은 닦아낸 후 씻어주세요.

  ❹ 각종 세제는 가능하면 친환경세제를 이용해주세요.

(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306180)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화 042)930-7340,1 | 전송 042)930-7342 | 홈페이지 http://www.daecheong.or.kr | 이메일 dch2004@naver.com